

2019. 9. 20

고용지표, 예상보다 양호하며 향후 지속 여부가 관건

강봉주(3705-6052)

□ (고용) 8월 고용지표는 연령별, 업종별 등 다양한 범주에서 예상보다 상당히 양호. 동 추세의 지속 여부가 향후 관심사(GS, JPM, HSBC, Citi, Barclays, BoA)

○ `19.8월 고용지표는 예상을 상회. 세부 내역 또한 다양한 범주에서 개선되었다는 평가

– (실업률 하락) 8월 실업률은 3.1%로 7월 및 주요 해외기관 예상(4.0%)보다 크게 개선

• 전체 실업률은 `13.11월 이후 최저치. 모든 연령층에서 실업률이 하락하였으며, 특히 15~29세 청년실업률은 9.8%→7.2%로 대폭 하락(그림1)

• 확장실업률로 불리는 ‘고용보조지표3’ 또한 11.9%→11.0%로 큰 폭 하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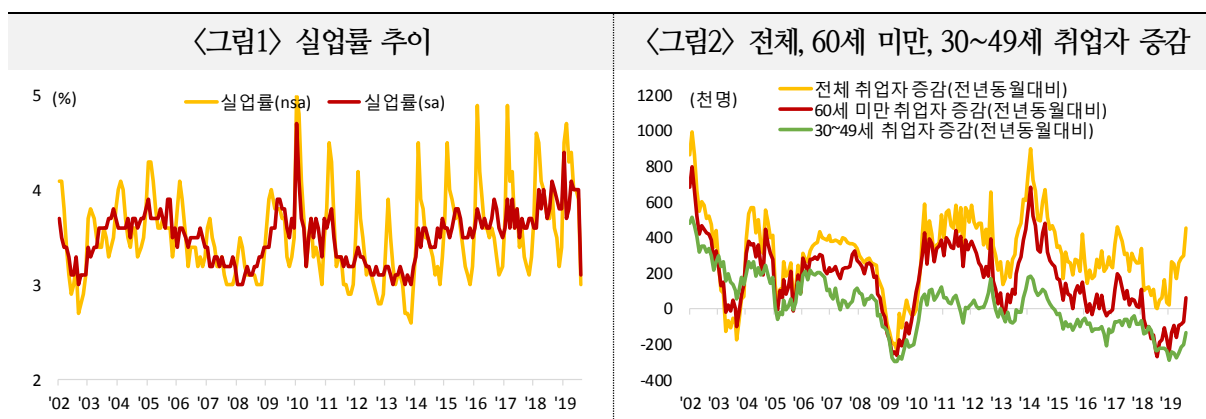
– (취업자수 증가) 8월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+45.2만명으로 `16.1월 이후 최고치

• 60세 미만 취업자수는 `18.2월부터 지속적으로 감소세(-)를 보여오다 18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(전년동월대비 +6.1만명)(그림2)

• `16.1월 이후 전년동월대비 감소(-)를 기록 중인 30~49세 취업자수는 `19.7월까지 13개월 연속 -20만명대를 유지하다가 8월 -13.6만명으로 감소폭 대폭 축소(그림2)

• 산업별로 살펴보면 `18.4월 이후 전년대비 감소세(-)를 지속하고 있는 광공업 취업자수가 7월 -9.7만명에서 8월 -2.8만명으로 감소폭 축소(그림3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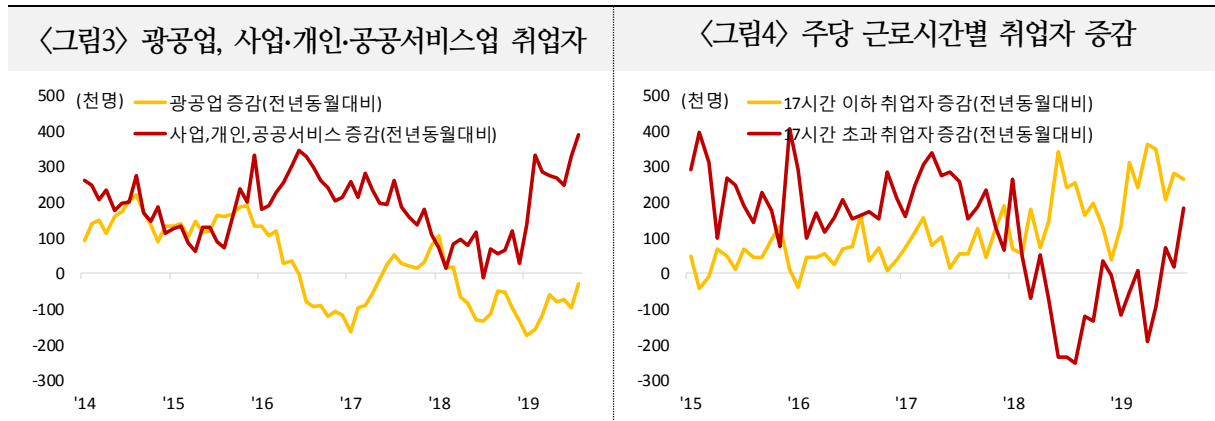
• 근로시간별로도 주당 17시간을 초과하는 취업자수가 전년동월대비 +18.6만명으로 `18.1월 이후 최고치(그림4)



출처: 통계청



KCIF



출처: 통계청

- '18년 이후 고용 부진 추세에서 유의미하게 벗어났다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개선세의 지속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
 - 다수 IB들은 8월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보다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에는 동의. 일부 기관은 고용 회복을 통해 가계 소득 및 지출이 견조한 흐름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예상
 - 다만 일시적 요인에 일부 기인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으며, 유의미한 반등으로 보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견해
 - (취업자수 관련 일시요인) '18.8월 전년동월대비 취업자수가 '10.1월 이후 최저인 +3천명을 기록한 '기저효과'를 고려할 필요. 또한 21개 업종의 52시간 근무제 특례 제외가 7월부터 적용되면서 숙박·음식 업종 등에서 일시적 고용 확대가 나타났을 가능성
 - (경제활동 참가율 하락) 취업자수의 증가와 함께 경제활동 참가율이 큰 폭으로 하락(63.3%→63.0%, sa)하였으며, 금번 실업률 하락 기여분의 절반 가량이 경제활동 참가율 하락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
 - (구조적 요인) 8월 고용지표가 7월보다 크게 개선되었으나 추세적으로 볼 때
 - 광공업 취업자 감소폭 확대(월평균 '18년 -6.0만명→'19년중 -9.8만명)(그림3)
 - 사업·개인·공공서비스업 취업자 증가폭 확대(월평균 '18년 +6.6만명→'19년중 +28.4만명)(그림3)
 - 자영업자 등 비임금 근로자 감소세 지속(월평균 '18년 -5.2만명→'19년중 -5.3만명)
 -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폭 확대(월평균 '18년 +23.4만명→'19년중 +35.5만명)(그림2)
 - 17시간 이하 근로자 증가폭 확대(월평균 '18년 +15.8만명→'19년중 +27.0만명)(그림4)
- 민간 부문의 고용이 구조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평가하기에는 시기상조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, 본 보고서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 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. 국제금융센터는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문의: 02-3705-6052 혹은 bj.kang@kcif.or.kr, 홈페이지: www.kcif.or.kr